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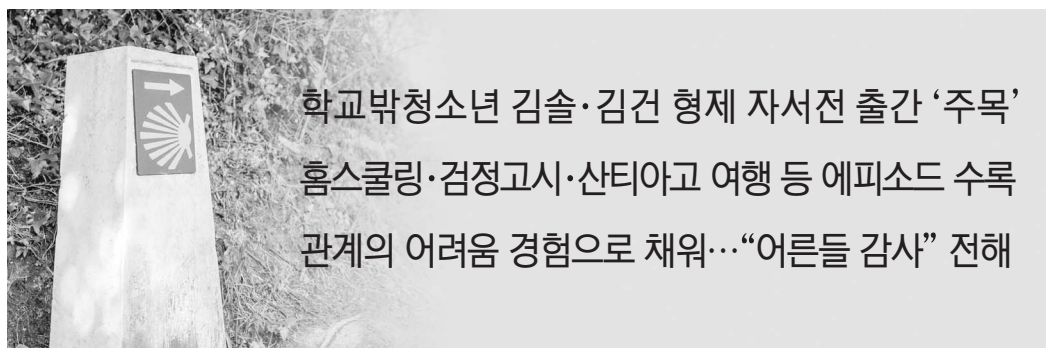
“선택·책임 가르쳐준 순례길…누군가에 용기 되길”

“흙스쿨링, 검정고시, 산티아고 순례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비슷한 고민을 하는 또래와 부모에게 하나의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10대를 마무리하는 자서전 ‘산티아고 길 위에서 쓴 10대의 자서전’(지음출판 刊)을 최근 펴낸 광주 출신 형 김술(20)과 동생 김건(18) 형제는 이처럼 소감을 밝혔다.

이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또래에게 ‘이런 선택

고 순례길 800km를 비롯해 자전거 국토 종주, 해외 배낭여행을 한 경험, 흙스쿨링과 검정고시,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시간 등이다. 1부는 형인 김술, 2부는 동생인 김건, 3부는 이들을 묵묵히 지켜준 아버지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자서전이라는 다소 묵직한 이름을 달았지만, 이 책의 문장은 의외로 담담하고 솔직하다. 스스로의 10대를 정리하며 ‘잘가, 나의 10대에게’라고 작별을 고하는 기록에 가깝다. 자서전 제작 역시



학교밖청소년 김술·김건 형제 자서전 출간 ‘주목’ 흙스쿨링·검정고시·산티아고 여행 등 에피소드 수록 관계의 어려움 경험으로 채워…“어른들 감사” 전해

도 가능하다”는 정도의 용기가 됐으면 한다. 부모님에게 아이가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실패는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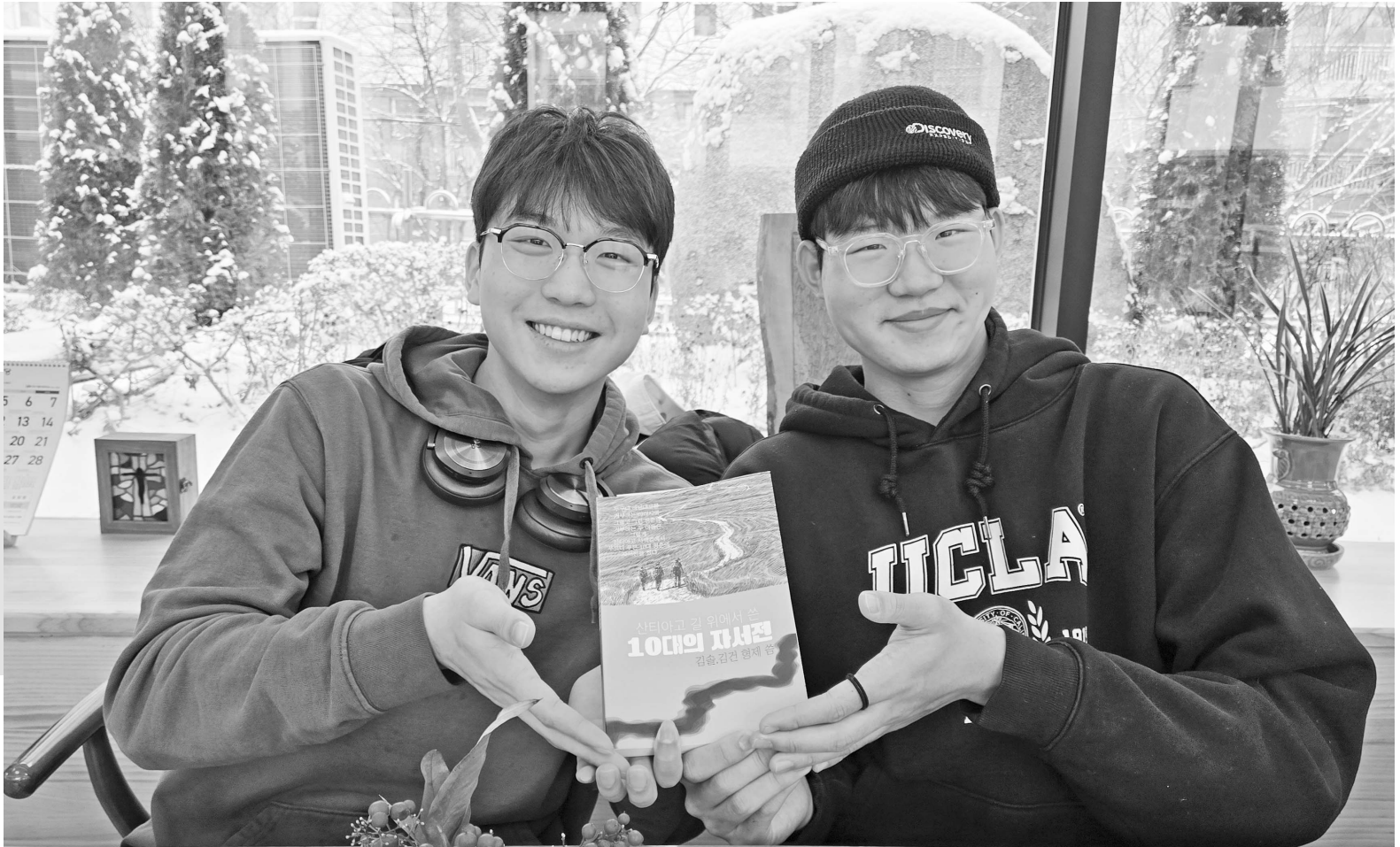
형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제도권 교육의 틀에 질문을 던졌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넓은 세상을 겪은 경험이 중학교 시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흘러가듯 따라가는 교육’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한다. 동생인 김건씨가 중학교 2학년 때 먼저 학교를 떠났고, 형 김술씨는 고등학교에 한 달 남짓 다니며 야간자를 학습과 경쟁 중심의 일상을 경험한 뒤 “이 나이에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느끼고 동생의 선택에 용기를 얻어 자퇴를 결정했다.

자서전에는 정형화된 교실을 떠나 길 위로 나선 두 소년의 그간의 과정이 담겼다. 스페인 산티아

형제가 직접했다. 원고 교정 등은 함께했지만, 디자인은 둘째인 김건씨가 맡았다. 인디자인을 독학해 작업했다.

이들은 책에서 학교 밖 선택을 미화하지 않는다. 학교를 떠난 뒤 마주한 불안과 정체성의 공백, 관계의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낸다. 대신 그 공백을 채운 것은 ‘경험’이었음을 드러낸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배움의 경로가 열려 드론은 물론이고, 요트와 보트 조종, 제빵 및 바리스타, 컴퓨터 활용, 코딩, 목공 인턴십까지 섭렵했다. 형제는 “관계 중심 사회에서 ‘나는 누구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배경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이력은 경쟁을 위한 스펙이 아니라, 스스로를 설명하기 위한 언어였다는 것이다.

김술씨는 드론 1종 자격을 바탕으로 네팔 바야



학교밖청소년인 형 김술(20·오른쪽), 동생 김건(18) 형제가 최근 펴낸 ‘산티아고 길 위에서 쓴 10대의 자서전’을 들고 소개하고 있다.

스 지역 학교를 찾아 45일간 머물며 아이들에게 드론과 기초 수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용돈을 모아 이곳 학교 아이들을 후원해오다 코로나 확산 이후 봉사자들이 고국으로 귀국해 수업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한 뒤 후원금 500만원을 모아 기자재를 구매 떠난 봉사였다. 이때의 경험은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일이 누군가의 세계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 훗날 드론을 보게 될 때 나를 떠올릴지도 모른다는 말이 가장 오래 남았다”는 깨달음으로 남았다. 이외에 형제는 광주

청소년수련원에서 인성수련 봉사를 하면서 사회 생활 경험을 쌓은 사례도 수록됐다. 책은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이들의 시간을 남긴 유튜브 ‘비움 TV술길’을 소개하며 막을 내린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완결된 답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장사를 정리하려는 실용적 동기에서 출발했지만, 기록은 질문으로 끝난다. 두 형제는 대학 합격소식을 기다리며 새로운 배움의 장으로 향한다.

김술씨는 “길 위에서 모든 선택은 내가 해야했

다. 선택에 따른 책임 역시 내가 지는 것이었다. 이런 경험은 어떤 결정을 함께 있어서 내게 큰 자산이 됐다”고 밝혔다.

김건씨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을 지지해준 가족들 덕분이다. 특히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싶다”며 “우리가 커나가는 것을 지켜봐준 어른들께도 감사드리고”고 덧붙였다.

한편, 출판기념회는 오는 24일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글·사전·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침묵 속 드러난 인간의 내면…‘칼 드레이어’ 회고전

6일~내달 2일 광주극장서…‘오데트’ 씨네토크 진행

데뷔작 포함 무성·유성 등 장·단편 17편 ‘스크린에’

세계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영화감독 칼 드레이어. 그는 무성영화 시기에 데뷔해 기독교적 사유, 사회적 편견, 운명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통해 세계의 불가해한 질서를 영화 언어로 풀어내왔다. 이런 그의 장·단편을 한 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회고전이 펼쳐진다.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는 6일부터 3월 2일까지 광주극장에서 덴마크의 거장 칼 테오도르 드레이어(1889~1968)의 회고전을 갖는다.

상영작은 초기 무성영화부터 대표작까지 폭넓게 구성됐다. 장면 10편과 단편 7편을 만날 수 있다.

먼저 그의 데뷔작인 ‘재판장’ (1919)은 신생아 살해 혐의의 사형을 앞둔 젊은 여인과 그가 오래전에 버린 딸임을 알게 된 재판장의 내적 갈등을 그린 멜로드라마다. 플레시백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이 작품은 노르디스크 영화사에서 각본가로 활동하던 감독의 연출적 역량을 분명히 보여준다. ‘사탄의 책’ (1921)은 인간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두고 하느님과 사탄이 벌이는 내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신성모독적인 묘사로 당대 교회와 좌익 양측의 비난을 받았던 문제작이다.

‘서로 사랑하라’ (1922)는 계급과 성, 반유대주의를 대담하게 연결시킨 작품으로, 무대장치에 대한 감독의 완벽주의적 감각과 심도 깊은 미장센을 만날 수 있다. 동화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옛날 옛적에’ (1922)는 가상의 왕국 일리아를 배경으로 덴마크 극작가 홀거 드라크만의 원작이 바탕이다. 일부 필름이 소실됐으나 남아 있는 스틸과 자막을 통해 복원됐다.

‘집안의 주인’ (1925)은 실제 아파트를 그대로 재현한 세트에서 촬영된 실내극으로, 여압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자각해가는 여성을 섬세하게 그려 정서적 리얼리즘이 탁월하게 드러난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노르웨이의 자연 풍광이 인상적인 ‘글루담의 신부’ (1925)는 밝은 멜로드라마의 형식을 띠면서 사랑과 욕망, 계급 갈등이 자연의 힘과 맞물리며 전개된다.

드레이어 최초의 유성 영화인 ‘뱀파이어’ (1932)는 세리단 르 파누의 소설 ‘카밀라’를 토대로 심리적 공포감에 중점을 뒀을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미묘한 심리 묘사가 뛰어난 걸작이다. 이어지는 ‘분노의 날’ (1943)은 ‘뱀파이어’ 이후 10여년간 영화를 만들지 못한 그가 나치 독일의 지배에 있던 고국 덴마크에서 완성시킨 작품이다. 마녀 사냥을 소재로 인간의 욕망과 억압을 다룬다.

1955년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오데트’는 극작가 카이 몽크의 희곡 ‘말춤’을 원작으로, 신의 존재와 믿음의 의미에 관해 질문을 던진다. 마지막 장면 ‘게르트루드’ (1964)는 사랑 없는 결혼에 지친 은퇴한 오페라 가수의 내면을 밀도 있게 그린다.

장편에 이어 단편으로는 미혼 여성의 낙태와 출산 사이의 갈등을 다룬 ‘좋은 엄마들’ (1942)을 비롯해 덴마크 작은 교회들의 개성을 담아낸 ‘마을의 교회’ (1947), 암 조기 검진 홍보를 위해 제작된 ‘암과의 투쟁’ (1947), 도로 안전 캠페인 의뢰를 받아 제작한 ‘그들은 간신히 페라에 뒀다’ (1948) 등을 접할 수 있다.

이외에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네토크가 마련된다. 오는 28일 오후 3시 유운성 영화평론가의 ‘오데트’ 시네토크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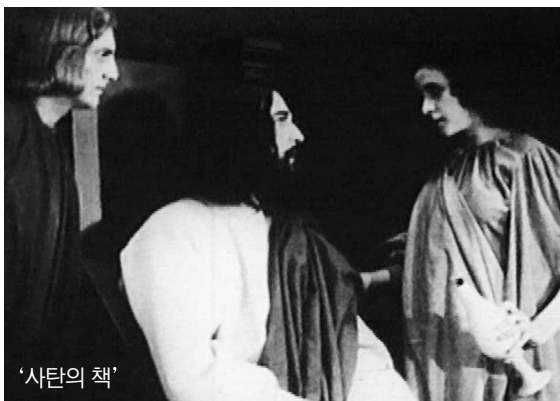
광주극장 관계자는 “칼 드레이어 감독의 영화는 외적 사건보다 인물의 양심과 믿음, 두려움을 집요하게 응시하는 태도로 특징지어지곤 한다.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재조명되며, 수많은 영화인과 창작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면서 “봄이 오는 길목, 칼 드레이어의 신비롭고 매혹적인 영화 세계로 빠져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cinemagwangju/)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



‘분노의 날’



‘사탄의 책’



‘서로 사랑하라’



일본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에서 진행된 국제교류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모습.

예술인 위한 창작스튜디오 입주하실래요

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등 선발…이달 중 접수 마감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지역미술인의 창작·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2026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입주·파견) 및 청년예술센터 입주예술인을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선발위원은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입주작가 2명, 국외교류기관(독일 뮌헨시 문화부, 대만 사우름 컬처파크) 국가별 1명으로 국제레지던시 사업에서 총 4명의 작가를 선발하며, 청년예술센터는 입주예술인(기획·연구자 포함) 5명(팀)을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국제레지던시 만 19세 이상, 청년예술센터 만 39세 이하로 광주지역 출신 및 지역 기반 활동 작가·예술인이다.

국제레지던시는 2월 9일부터 19일까지, 청년예술센터는 2월 7일부터 23일까지 각각 접수를 받으며,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미술관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3월 5일 청년예술센터 입주예술인 최종 선정자를 발표하며, 이어 3월 6일에 국제레지던시 입주 및 파견 파견 최종 선정자, 독일 파견 후보자를 발표한다. 독일 파견 작가 최종 선정은 5월 중순에 결정될 예정이다.

입주 및 파견기간은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입주 경우 4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이며, 국외교류 기관 파견의 경우 대만은 5월부터 6월까지이고 독일은 7월부터 9월까지다. 이외에 청년예술

센터는 3월부터 2027년 1월까지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작가들에게는 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제레지던시 입주작가에게는 창작실, 창작비 지원, 오픈스튜디오, 비평 및 교류 워크숍, 문화예술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국제레지던시 국외교류기관 파견 작가에게는 왕복항공료, 창작비 지원, 교류기관 주관의 현지 작업실 지원, 오픈스튜디오, 작품발표전 등이 진행된다. 청년예술센터 입주예술인에게는 창작실 지원, 오픈스튜디오, 비평 및 교류 워크숍, 문화예술탐방, 작품발표전 등의 프로그램이 이뤄진다.

1995년 국내 최초로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시작한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 30년 간의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360여 명의 예술인과 함께 했다.

윤익 관장은 “지역 예술가의 창작 기반을 다지고, 국제교류를 통해 광주 미술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노력을 해왔다”며 “청년예술센터와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신진부터 중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의 예술가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에 관한 상세 사항은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http://artmuse.gwangju.go.kr) 내 ‘소식/참여’란의 관련 게시물에서 참고할 수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